



눈에 갇힌 대학 캠퍼스 17일 오전 쏟아지는 눈발 속에 조선대 정문은 기말고사를 보기위해 스쿨버스를 기다리는 학생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이날 오후 6시까지 광주의 적설량은 7.8cm를 보였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아시아문화전당 국가가 운영한다

특별법 국회 교문위 소위 통과...국가기관 인정·정부 재정 지원

운영 주체와 재정 지원을 놓고 논란을 빚어온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을 결 국 정부가 맡아 운영비도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는 17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광주에 있는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 '국가소속 기관'임을 명백히 하고, '국가재정 지원'까지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국가의 안정적 재정 지원 아래 아시아문화전당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교문위 전체회의, 법사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쳐야 하지만 여야는 물론 정부가 합의한 끝에 처리한 것이어서 빠르면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교문위 법안소위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정부 개정안'과 '박해자 의원 개정안'을 병합 심리한 끝에 박 의원이 요구해온 부분을 대부분 관철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해 처리했다.

이날 정부는 박 의원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주면서 "3~5년 한시적 국가소속 기관으로 하는 내용을 부칙에 넣자"고 제안

했지만 박 의원은 이를 거부, 결국 현재의 특별법안대로 국가소속 기구로 재확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문화전당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정부안을 폐기시키고 '일부만 위탁할 수 있다'는 박 의원의 안을 채택했다. 즉 운영 전체를 법인에 맡겨 문화전당이 실질적으로 법인화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창의성이 필요한 일부 조직만 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위탁 법인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을 강행 규정화했다. 박 의원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

위에서 문화전당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정부안은 예산 지원에 대한 임의적 규정"이라고 비판하면서 "국가는 위탁을 받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운영·확충비, 콘텐츠개발 및 사업비 등 문화전당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는 자신의 개정안을 관철시켰다.

박 의원은 "법이 완전히 통과되기까지 앞으로는 교문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 등 몇 단계의 과정이 남아있다"면서도 "하지만, 가장 어려운 정부와 새누리당을 교문위 법안소위에서 설득했고 표결이 아닌 합의를 해냈으므로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남 '눈폭탄'

목포·완도 등 122개 학교 휴교...정전 피해 잇따라

완도가 기상관측사상 최고 적설량을 보이는 등 지난 16일 밤부터 17일까지 광주·전남 서부권에 눈 폭탄이 쏟아졌다. 18일이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예상되는 등 주말 한파가 계속되고, 눈 예보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 16일 밤부터 내린 눈이 17일 오후 1시까지 23.2cm가 쌓여 최고 적설량을 기록했다. 지난 1970년 7월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후 44년 만에 그 동안 최고 적설량 기록은 지난 2005년 12월5일의 18cm였다.

목포와 완도, 영광 등 전남 서부권의 9개 시·군 초·중학교 122곳은 17일 하루 휴업했다. 휴교에 들어간 학교는 완도지역이 유치원 25개, 초등학교 21개, 중학교 12개교 등으로 가장 많았다.

17일 새벽 1시18분께에는 해남에서 신안 안좌도를 잇는 송전선로가 폭설로 단락돼 해남군 화원·문내면 1만4000가구, 신안군 안좌·팔금·신의·하의·비금·도초면 2만 가구 등 3만7000가구가 정전됐다. 이후 공급 재개와 정전이 반복되다가 새벽 5시25분부터 정상적으로 전기가 공급되면서 주민들이 2시간 이

상 추위에 떨어야 했다.

전남도는 이날 하루 1189명의 제설 작업 인원과 348대의 장비를 동원해 도로 383곳 2763km의 눈을 치우느라 연화칼슘 540t, 소금 881t, 친환경제설제 162t 등 모두 1583t을 파부었다.

한편 광주·전남지역은 18일 낮 최고 기온이 평년보다 4~8도가량 낮아지면서 주말까지 추위가 맹위를 떨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8일 광주·전남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떨어지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광주의 최저 기온은 영하 6도, 최고 기온 영상 2도 분포를 보였다.

기상청은 또 "주말까지 추위는 계속되다가 다음주부터 기온이 점차 올라가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고 설명했다.

18~19일 광주·전남지역의 최저 기온은 영하 8~1도, 최고 기온은 1~3도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19일 오후 서해안부터 점차 흐려져 눈 또는 비가 오다가 21일(일요일)에 그치겠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빛가람에서 세계 에너지산업 미래 이끈다

한전 신사옥 이전 개청식

"빛가람 도시에서 세계 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이끌것입니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동지를 둔 한국전력이 17일 나주 본사 신사옥에서 이전 기념식을 갖고, '빛가람 시대' 새 비전을 선포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문재모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김동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추미

애, 신정훈 국회의원,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지사, 강인규 나주시장 등 주요 외빈과 지역 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정 총리는 기념식에서 "이전을 기념해 새겨놓은 '광명일신'(光明日新)이라는 말처럼 한전과 광주·전남이 밝은 빛으로 나날이 새로워지기를 바란다"고 덕담을 건넸 뒤 "빛가람 도시는 이제 힘찬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으며 내년까지 에너지와 정보통신, 농·생명, 예술분야 16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융·복합 산업의 새로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전이 광주·전남과 손잡고 창조경제 혁신구역인 '빛가람 에너지밸리'를 조성키로 한 것은 의미가 크다"며 "공공기관과 지역주민이 힘을 모아 상생 협력의 훌륭한 성공모델로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 사장은 기념사에서 "전직원이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의지를 갖고 가장 스마트하고 깨끗한 글로벌 기업을 만들겠다"며

"빛가람 도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혁신도시이자 세계 속의 에너지 벨리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한전이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와 함께 한전은 전력산업 116년 역사를 넘어, 나주에서 새로운 100년을 열어나갈 혁신적인 '가치창조자'로서, 글로벌 에너지산업을 선도하고 인류와 사회에 기여하는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으로서의 새 비전을 함께 선포했다.

새 비전은 핵심가치로 미래지향·고객중심·도전혁신·사회책임·소통융합 등 5가지를 담았으며 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이끄는 한전의 의지를 담고 있다.

/임동률기자 jexian@kwangju.co.kr

증권사 구조조정 '칼바람' ▶8면
나주 이슬촌의 크리스마스 ▶11면

광신대학교
2015년 학부 정시모집
12월 19일(금)~24일(수)
문의: 062)605-1114

새로운 모험의 시작
The New GLA-Class